

## 마리아와 페르난도의 경우

마리아와 그녀의 남편 페르난도는 저녁에 큰 사무실 건물을 함께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큰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한달에 두번 급여를 받습니다.

2월은 전년도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청소업체 소유주에게 그들의 T4전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부에 수입세금으로 얼마나 지불했는지를 그들의 세금보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길, "두분은 직원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계약자입니다." 그 사람은 정부에 그들을 위해 소득세를 보내지 않았습니. 그는 "당신들은 당신들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페르난도는 수입이 있었지만 소득세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그래서, 세금낼 돈을 따로 적립하지 않았습니. 또한, 그들이 쓴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았습니. 영수증없이 는 영업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

그들은 저금에서 소득세와 정부에 빚진 CPP를 지불해야 했습니.

여러분은 마리아와 페르난도가 고용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계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들이 그의 직원이었다면, 그들은 고용주로부터 무엇을 수령하고 있었을 까요?

만약 그들이 계약 청소인으로 계속 일한다면, 내년 세금낼 시기에 좀 더 나은 대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리아와 페르난도가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